

#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 도로개설, 뉴딜사업 가시화

## 보상협의 마무리...테마 거리 등 원도심 활성화 기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상권 활성화 및 이용편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서남동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인 도로개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연내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도로개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남동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인쇄의 거리 상권쇠퇴 속에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쇄의 거리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3백여억 원을 투입해 ▲인쇄 아

카지엄 ▲코 워킹 스페이스 ▲테마 거리 ▲공영주차장 및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인쇄의 거리 상권회복 등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동구가 도로개설을 시작으로 테마 거리, 거점시설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뉴딜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로개설사업 본격화로 서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활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월산동 노후 공원 '三代 놀이터'로 탈바꿈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월산동에 유년과 장년, 노년 등 3대가 소통하는 놀이공원이 조성됐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월산 제2 어린이공원이 최근 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곳 어린이공원은 지난 1968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공원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어 낡고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곳으로, 남구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유년과 장년, 노년층까지 3대가 소통할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정비했다. /윤규진 기자

##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간담회

다직종·다기관과 함께 돌봄서비스 연계·통합 상호 협력 논의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달 24일 지역 내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는 물리치료사협회 광주시회, 작업치료사협회 광주전남지부, 서구종합재가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등 11개 기관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행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주거+의료, 의료+요양, 주거+일상생활지원 등으로 분야별 연계·통합을 위한 기관 간의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적극 보완하여 보다 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간담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과 상호 소통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성공리에 안착하여 '광주 서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통합돌봄과(☎350-4000)로 문의하면 상담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김삼호 광산구청장 "AZ 백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5일 오전 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을 맞았다. 올해 만 55세로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김 구청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른 것. 백신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국민적 백신 접종 참여가 이번 접종 목표다. 김 구청장은 "이상반응도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백신 접종이 되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제공

## 북구, 비엔날레전시관 주변 도심 경관 획기적 변신

전시관 일원 공공디자인, 도시문화 브랜드 구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제 13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맞춰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북구는 "지난해 문체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시범사업인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 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은 ▲비엔날레광장 연계 보행친화 공공디자인 ▲비엔날레 아트쉘터 및 웰컴사인 ▲광주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구축 ▲좋은 빛 상징거리화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비엔날레광장 연계 보행친화 공공디자인은 비엔날레 광장과 인접한 보도를 확장해 관람객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버스킹 공연, 주민 축제 등 문화에

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비엔날레 상징 조형물인 아트쉘터(버스승강장)는 현대카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이집트 출신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CNN, CITI Bank 로고를 제작한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폴라 웨어'와 협업한 작품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북구는 이번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문화가 상생하는 지역발전의 모델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광산구, 스마트팜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응원

광주 광산구가 공익적 일자리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장애인가계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맺었다.

구정 상활실에서 이날 오전 연합약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서기영 (재)장애인가계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정보통신기술(ICT)로 상추와 같은 엽채류를 유기농 수경재배하는 스마트팜을 하남동에 세워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44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29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이뤄진 사업비를 공간 구축과 운영 등에 10년 간 투입할 계획이다. /주형탁 기자

